

|유아~초등 1, 2학년|
〈밤의 정원에서〉

캐린 버거 글·그림 | 신형건 옮김

★ 〈커커스 리뷰〉 추천도서 ★ 〈훈 북〉 추천도서



“마음을 달래 주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완벽한 결합.” -〈커커스 리뷰〉

“이 매혹적인 그림책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호기심, 쏟아지는 졸음 사이에서 즐거운 긴장 상태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훈 북〉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발하고 놀랍게 밤을 보여주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달콤한 꿈을 꾸는 데 필요한 위로와 안도감을 준다.” -〈북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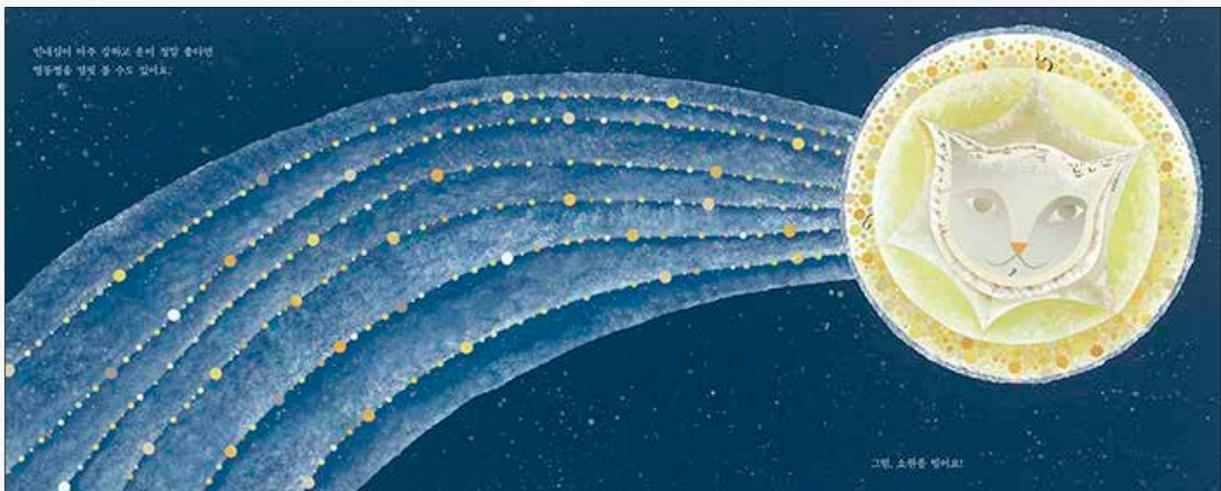
『밤의 정원에서』는 잠 못 드는 어른과 아이를 위한 자장가 같은 그림책이다. 잠자리에서 듣는 옛이야기처럼 신비롭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는 손길처럼 포근하다. 저자인 캐린 버거는 정교한 콜라주 기법으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다. 그림책을 10권 이상 펴냈으며, 『작고 노란 잎』은 〈뉴욕 타임즈〉 ‘올해의 그림책’에 선정되었다. 『밤의 정원에서』 역시 독특하고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림책이다. 감각적인 색의 조합, 다채로운 이미지를 활용해 친근하면서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밤을 표현했다. 느긋하게 오랫동안 견고 싶은 정원처럼 말이다. 산책하듯 책장을 넘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만 같다.

읽기 전 활동

1. '밤' 하면 떠오르는 동물, 혹은 '밤'과 잘 어울리는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함께 말해 보세요.
2. 책 표지의 앞뒤 날개에 들어 있는 글을 읽어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보세요.
3.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이 있나요? 또는 잠이 잘 오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읽기 중 활동

1.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나 산책할 때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2. 밤에는 주위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대신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또렷이 들리기도 합니다. 밤에 들었던 소리 중에서 기억에 남는 소리가 있나요?
3. '밤의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떠오르는 대로 말해 보세요.



4. 다음 보기와 같이 대상을 빗대어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보기〉

-(눈썹)같이 가느다란 초승달

-(불)같이 불그스름한 한가위 보름달

5. 책 속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 특별히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나요? 그 까닭도 함께 말해 보세요. (글과 그림 어느 것이든 괜찮아요.)

읽은 후 활동

1. 우리말에는 ‘밤’과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이 많아요. 책이나 사전에서 찾아보고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예)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아닌 밤중에 흥두깨

2. 내가 만약 밤의 정원을 꾸민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나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써 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3. 밤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켜 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세요.

